

삼성, 포커사 인수할 듯... 의향서 제출

삼성항공이 네덜란드의 포커(Fokker)사를 인수키로하고 최근 인수의향서를 공식 제출함으로써 삼성의 포커인수가 곧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한중 중형항공기 공동개발협상 결렬로 진통을 겪어온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됐다.

동사는 포커사 인수와 관련하여 빠른시간내에 최종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아래 실사팀을 현지에 파견, 네덜란드 정부와 자금·세계 지원을 포함한 구체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다.

삼성측이 인수할 부문은 포커사의 생산전문부문인 인터그레이터 사업부문으로 이 사업부문은 중형항공기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기술 인력만 700-8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것은 물론 생산라인과 중형항공기 기술도면까지 갖고 있고 현재도 수주를 받아 공장을 가동중이다.

지난 3월 파산한 포커사는 당초 양대측인 에이비에이션(판매 및 정비)과 인터그레이터 부문 등을 동시에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에이비에이션부문은 최근 네덜란드 중장비업체인 스트로크사에 매각되었다.

파산당시 포커사가 제시한 매각 금액은 양부문을 합쳐 2억5천만달러 선이었으며 이전에 포커사는 삼성측에 인터그레이터부문 매각 금액으로 1억3천만-5천만달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전자, 인도지역 이동통신서비스 참여...

현대전자가 인도의 위성이동통신서비스사업에 참여한다.

동사는 인도지역에서 범세계 개인휴대통신(GMPCS)서비스인 '글로벌스타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인도의 4대그룹중 하나인 타파르그룹 및 퍼텍컴퓨터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키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신설합작회사인 '글로벌스타인디아(GISS)'사는 현대가 49%, 인도 회사들이 51%의 지분을 갖는다.

글로벌스타프로젝트는 48개의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려 범세계적 위성통신망을 구축하여 개인 단말기를 통해 위성전화, 팩시밀리, 데이터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려는 야심찬 계획이다.

현대전자는 '94년 데이콤, 현대종합상사와 공동으로 글로벌스타오너십에 세계 유수의 통신업체와 함께 지분을 투자, 인도를 포함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사업

권을 따낸바 있다.

금년 말까지 사업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GISS사는 4,300만달러를 투자하여 위성과 지상을 연결하는 게이트웨이(관문국)를 3개지역에 설치, '98년부터 상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전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대만, 핀란드와 합작회사설립 계약을 맺었고, 동사의 사업권 획득지역인 뉴질랜드, 헝가리, 네팔등지에서도 추가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대우중공업-현대우주항공, 위성관제시스템개발 참여

오는 '99년 발사될 다목적 실용위성의 관제시스템 개발에 대우중공업과 현대우주항공이 공동으로 참여키로 했다.

한반도의 지도제작, 해양관측, 우주과학실험등을 수행할 다목적 실용위성을 추적, 감시, 제어할 관제시스템을 국산화하기 위한 동 사업은 '99년 4월말까지 진행될 것이며 동 위성은 같은 해 7월에 발사되어 3년간 사용될 것이다.

대우중공업은 위성시물레이터 서비스시스템을, 현대우주항공은 TT&C(추적, 감시, 제어)서비스시스템, 위성운용서비스시스템, 임무

분석서브시스템을 각각 개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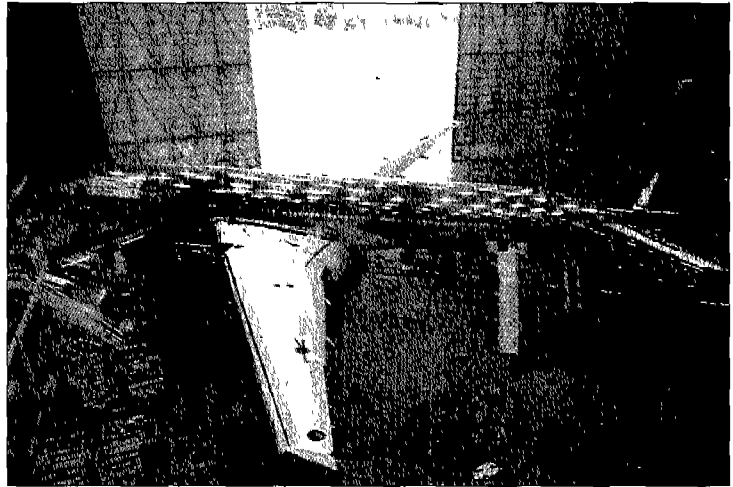
이들과 함께 전 개발과정을 수행할 전자통신연구소는 한국통신의 출연으로 무궁화위성1,2호 사업의 하나로 관제시스템개발 기술전수등에 참여하여 해당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동 연구소는 '앞으로 개발되는 위성관제기술은 항공, 해상관제 기술등으로 실용화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기술의 수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잉, 21세기 대비 새로운 전략준비...

미국의 보잉(Boeing)사는 10월말까지 21세기를 선도할 광범위한 제품개발 전략을 마무리지으려 하고 있다. 동 사는 몇가지의 선택사항을 놓고 고심하고 있으며, 엔지니어의 부족으로 회사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고 있다.

동 사는 현재 제3세대 단/중거리 737-600/700/800기와 장거리 -200IGW, 777기의 스트레치 -300기 개량형과 같은 몇 가지 대형 사업에 이미 치중하고 있는 중이다. 동 프로그램들에 대한 대부분의 설계 작업이 이미 끝났으며, 이제는 제작, 비행시험, 인증에 주력할 계획에 있다.



브리티쉬 항공에 인도될 예정인 최초의 777-200IGW이 완성되고 있다

이중에 747-500/600X 프로그램이 최우선 순위로 보이는데, 판보로 에어쇼에서 판촉을 위한 총력을 기울였으며 정식 발주는 올해 말로 예상된다.

동 항공기 제작사는 커스터머에 따라 777기의 개발에 있어서 두 가지 방향을 잡고 있는데, 아직 어떠한 777기종도 주문하지 않은 아메리칸 항공은 -200X기종을, '95년에 77대를 주문한 싱가포르 항공은 -100X기종을 선호하고 있다.

美 휴즈사, 팬암셋 인수할 듯

미국의 휴즈일렉트로닉스(Hughes Electronics)가 세계적인 인공위성 제작사인 팬암셋(PAN-AMSAT)을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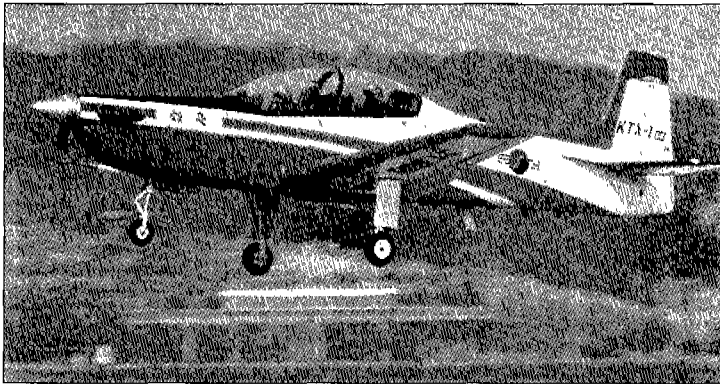
동 사가 팬암셋사의 인수에 성

공하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인공위성회사가 되는 것이다. 업계의 소식통은 GM사의 자회사인 동 사는 팬암셋사를 30억달러 수준에서 인수하려는 내용의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동 사는 장거리 통신사업을 전략분야로 설정, 사기업으로는 가장 광범위한 인공위성시스템을 갖춘 팬암셋사를 인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팬암셋사 역시 매각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모색해 왔다.

대우중, KTX-1시제품조립... 5번째 시제기 제작

대우중공업은 창원 공장에서도 KTX-1의 시제기 조립에 들어갔다. 이번에 제작되는 KTX-1은 시제 5호기이며 마지막 시험용



항공기로, 700kw의 추력을 내는 플랫폼엔지니어 PT6A-62 터보프롭엔진을 탑재하였다.

비행이 '98년초로 예정된 동 항공기는 3,4번째 시제기들의 다양한 공기역학적 개선사항이 반영되어 제작될 예정이다.

한편, '웅비' 호로 명명되어진 KTX-1은 2000년에 첫 번째 양산기종을 생산, 공군에 인도될 계획이다.

스넥마-P&WC, SPW14엔진 개발을 위해 제휴

프랑스의 스넥마(Snecma)사와 플랫폼엔지니어캐나다(P&WC)사는 SPW14 터보팬엔진의 개발, 제작, 판매, 지원을 위한 합작계약에 서명하였다.

동 엔진은 58-90인승 소형제트 여객기용 엔진으로 추력은 1만2천-1만6천 파운드이다. 개발은 동 사업을 위해 설립될 새로운 합작 회사에 의해 수행될 예정이다.

동 엔진은 떠오르고 있는 지역 항공기 시장에서 예상되는 경쟁자 중의 하나로 발주가 안될 수도 있고 탑재시킬 동체를 찾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다. 이에 동 합작사들은 추력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스넥마사는 현재 미국의 GE사와 제휴하고 CFM88엔진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GE사의 경쟁사인 P&WC사와 공동개발에 나서므로써 항공기엔진업체의 판도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P&WC사는 미국 엔진업체인 P&W사의 자회사로, 세계 3대 항공기용 엔진메이커중 P&W사와 GE사는 개발중인 B747 시리즈용 엔진을 공동개발기로 합의한 바 있다.

佛 Socata, 민간용 훈련기 생산

프랑스의 아에로스빠시알사의

자회사인 Socata사는 수 개월이 내에 쌍발 TB360 민간용 훈련기를 생산할 예정이다. 첫 번째 인도는 '97년 11월로 예정되어 있다.

동사가 생산할 기종은 'Dubbed Tangara'로 '70년대 중반 그루먼 아메리칸 항공에 의해 개발된 미국의 쿠키 GA-7기의 개량형이다.

Socata사는 최근 쿠키의 제조권을 따낸 뒤 동 항공기의 대부분을 현대화하였다. 그 결과 두대의 시제기가 완성되었다.

동사는 'Socata의 판매 목표는 Tangara기를 전세계의 비행학교에 IFR 훈련기로 판매하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연간 15-25대의 항공기의 수요를 예측하고 있다. 동 항공기의 가격은 '97년을 기준으로 43만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조립 라인을 프랑스에 세울지 아니면 텍사스의 대평원에 세울지는 조만간에 결정될 예정이다.

Raytheon사의 Duchess기와 Piper사의 Seminole기와 경쟁할 동 항공기는 180마력을 내는 두개의 Lycoming O-320D1D4 엔진과 일정한 속력을 내는 73-in-dia. Hartzell 프로펠러를 사용하여 동력을 공급하게 된다.

동 항공기의 최대 이륙중은 1,750kg이며, 최대 고도는



4인승 Socata Tangara IFR 훈련기의 첫 인도는 '97년 4/4분기로 계획되었다

20,000ft. (엔진 하나로는 5,500ft.), 최대 순항속도는 174kt이다.

영국항공 5년간 만명감축

영국 브리티시에어웨이즈(BA)가 대규모 인원감축에 나설 전망이다. 독일의 유력지 디 벨트지는 BA사가 앞으로 전직원의 1/4에 해당하는 1만명의 종업원을 감원하는등 대대적 감량 경영에 나설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예동 항공사의 최고 경영자인 콜린 마셜경은 '아직 최종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영국의 민영화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 동항공사는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비용절감과 인원감축을 펼쳐 왔다. 그 결과, 지난해 7억파운드(8천8

백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줄여 5억8천5백만파운드의 세전이익을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러시아 로켓업계 '재발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러시아 로켓업계가 인공위성 발사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00년까지 지구궤도에 쏘아 올려질 인공위성은 350여기나 돼 이 분야는 21세기 첨단유망사업의 하나로 꼽힌다. 이동전화와 디지털 TV·멀티미디어등 미래산업의 발전과 맞물려 위성전파수요가 급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루니체프 러시아 국립우주센터는 미국의 마틴사의 인공위성을 대행발사해 주고 있고 여타 로켓업체들도 보잉등 미국 우주항공업체들과 제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에 네 르기 아사는 2000년 세계 상업위성 발사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겠다는 포부를 가진 미국의 ILS사와 제휴해 석유추진에서 위성을 해상발사하는 작업도 진행중이다.

러시아(구소련)는 지난 '61년 인류 최초로 유인우주선을 쏘아 올렸던 나라로 정교한

로켓을 만들어 발사하는 기술은 분야에 따라 미국보다 10년까지 앞섰다는 평가를 듣고 있지만 소련붕괴이후 붙어닥친 경제난으로 위성발사업계의 자립기반은 허약하다.

우선 미국이 자국 기업과 러시아와의 지나친 유착을 꺼리고 있다. 미 국방부는 첨단 우주 과학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다는 이유로 미국산 위성의 러시아내 발사 물량을 제한하고 있다.

크루니체프 연구센터의 한 고위간부는 이러한 견제에 대해 '뒤늦게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러시아의 손발을 이런식으로 묶으면 어찌하느냐'고 하소연 했다.

2000년이면 연간 24억5천만불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상업위성 발사시장을 놓고 돈줄이 달리는 러시아는 미국등의 자본에 운명을 내맡기고 있는 상태다.